

책으로 물들었던 파주북시티

제6회 국제출판포럼 · 동아시아책의 교류 성료

국내외 편집자 및 에이전트, 작가, 언론인 등이 파주출판문화단지에서 모여 글로벌 출판 시장에 대한 가능성과 출판 전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적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지난 10월 7일에는 국제출판포럼을, 10월 14일에는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특히 10월 1일부터 9일까지 파주북소리축제도 열려 파주출판문화단지는 그야말로 책 잔치로 풍성한 한 달을 보냈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제6회 북시티 국제출판포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의 지원을 받아 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이기웅)에서 주최한 제6회 북시티 국제출판포럼에서는 ‘글로벌 출판 시장과 문학 한류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출판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고, 한국 문학이 세계 독자의 사랑을 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국제출판포럼에는 황진하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김언호 파주북소리조직위원장(한길사 대표), 김경희 지식산업사 대표, 김혜경 푸른숲 대표 등 출판인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기웅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 조직위원장(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한국 문학이 세계의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원년이다. 한국출판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변화된 오늘을 점검하고 세계출판시장에서 한국 문학의 활로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이번 국제출판포럼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서 출판과 출판인의 역할을 점검하고 한국문학의 내일을 모색해보자”라고 말했다.

송영만 국제출판포럼 집행위원장(효형출판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김주연 한국문학번역위원장이 ‘글로벌시대,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출판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세션1. 한국문학과 해외출판사의 선택에서는 박해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사회로 로빈다서 랜덤하우스 크노프 출판사 부사장 겸 수석편집자(미국), 소피 버컨 오리온 출판그룹 웨이드펠드 앤니컬슨 편집자(영국)가 연사로, 김승복 쿠온출판사 대표(일본), 염현숙 문학동네 편집국장(한국)이 패널로 참가했다. 세션1에서는 북미와 유럽지역 굴지의 출판사로부터 신경숙을 필두로 한국문학을 번역출판한 배경과 비영어권 문학작품이 영어권에 폭넓게 소개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2. 글로벌 문학시장과 에이전트의 방향에서는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한국)의 사회로 켄트 도너반 올프 문학담당 에이전트(미국), 유리카 요시다 일본저작권출판센터 대표(일본), 이구용 케이엘매니지먼트 대표(한국)가 연사로, 곽효환 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한국), 김윤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사업본부장(한국)이 패널로 참가했다. 세션2에서는 글로벌 출판시장을 움직이고 중개하는 에이전트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을 대표하는 에이전트들로부터 글로벌 문학시장의 흐름과 한국출판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3. 미디어가 본 한국문학의 매력과 가능성에서는 김응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한국)의 사회로 보이드 턴킨 인디펜던트 문학담당기자(영국)가 연사로, 이바나 보즈데호바 프라하 카를대학교 교수(체코), 타테노 아키라 자유기고가(일본), 조경란 소설가(한국), 신중봉 중앙일보 문화부기자(한국)가 패널로 참가했다. 세션3에서는 언론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문학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출판을 통해 완성되는 문학

김주연 한국문학번역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문학은 결국 출판을 통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문학시대를 벗어난 근대문학에 있어서 이것은 인식이 아닌 사실의 문제가 되었다. 말하자면 모든 문학은 출판을 최종 결과물로 함으로써 작품으로서의 운명을 획득하는 것이다. 출판되지 않는, 즉 책이라는 실존의 형태를 띠지 않는 한 문학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오늘의 디지털 영상시대에 접어들어 전자책이 출현함으로써 종이책 독점시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역시 출판의 일환이다. 종이든 전자든 그것은 출판 매체의 다양성이 넓어지는 현상일 뿐 출판을 통한 문학의 구현이라는 양태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문학의 매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

백 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랜덤하우스 계열 크노프출판사, 칠십 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영국의 웨이드펠드앤니컬슨, 그리고 미국의 문학 전문 에이전트인 글로벌 리터러리 매니지먼트는 한국문학작품중 특히 <엄마를 부탁해>가 인기있었던 이유인 보편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콘텐츠를 전송하고 공유하는 일이 무척 쉬워지면서 한국 저자들도 전보다 빠르고 쉽게 세계인과 교류하고 있다. 국제적인 관심을 받은 한국저자들의 경우 보편성을 테마로 하면서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한국인 관점에서 쓴 작품들이지만 너무 이국적이거나 혹은 상투적이지 않다. 최근 한국영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면서 한국문학도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인이나 영국 또는 미국인이나 <엄마를 부탁해>를 읽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소설이 전달하는 보편성에 놀랐다. 모성에 대한 묘사,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부모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자식들 사이에서 골이 깊어져 가는 모습에 대한 작가의 관찰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외국 출판인들은 입을 모았다.

제7회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

아울러 파주 출판도시에서는 10월 14일 ‘책의 디자인, 출판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제7회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올해로 일곱 번째 개최된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에서는 기획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출판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적 접근 방법을 알아보고 젊은 출판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출판계의 새로운 시도들을 살펴보았다.

이기웅 동아시아책의교류 조직위원장(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은 “젊은 출판인들의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다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옛것을 보듬어 새로운 것을 거듭 창조하는 법고창신의 정신을 동아시아 책의 교류는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정병규 정디자인대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류샤오샹 고등교육출판사 수석아트디렉터(중국)가 중국의 새로운 출판움직임에 대해, 무로가 키요노리 격월간 IDEA 편집장(일본)이 일본의 소규모 출판 및 독립출판인을 통해 본 새로운 시도에 대해, 이기섭 뎅스북스 대표가 한국, 중심을 움직이는 변두리 출판에 대해 발표했다. ☞